박원자의 母情佛心 ⑲ 효석 스님의 어머니



▶ 한줄 요약
봉녕사 승가대학 교수로 후학을 지도하고 있는 효석 스님은 동국대서 불교를 전공하고, 인도서 문화인류학으로 석 · 박사를 받고 출가했다. 평소 신심이 돈독했던 어머니는 딸의 출가를 적극 지원했다. 딸이 사미니계를 받고 큰 절을 올리자 "스님 딸을 두어 영광입니다"라고 했다.

"스님 딸을 두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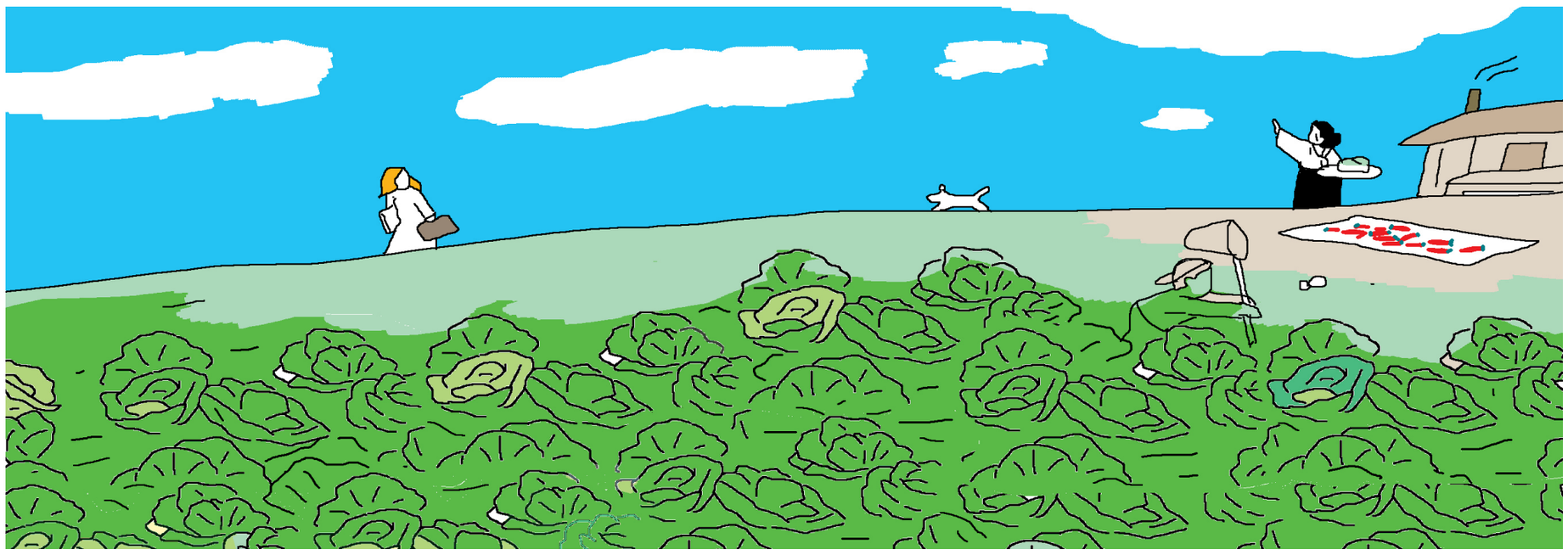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서울 법룡사 비구니회관에서 만난 효석 스님은 유쾌하고 에너지가 넘쳐보였다. 매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굉장히 젊어보였는데 올해 51살이라고 했다. 봉녕사 승가대학 교수로 후학들을 지도하는 한편, 은사인 본각 스님(전국비구니회장)을 시봉하고 있다.

스님은 동국대에서 불교학을 전공하고 인도로 유학을 떠나 문화인류학을 공부했다. 뿌나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델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논문을 끝내고 매일 앉아서 공부하느라 뒤틀린 허리를 치료하기 위해 100년 전통의 요가연구소에서 요가를 배워 아예 자격증까지 따고 왔다는 이 씩씩한 스님은 출가하는 날의 풍경부터 남달랐다.

"오빠 거사가 운전하는 차에 쌀을 두 가마니를 싣고 노트북이며 쓰던 카메라, 불교 관련 책들을 잔뜩 싣고 절로 들어가는 언덕을 올라가는데 다시 유학 가는 기분이었어요."

"출가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어머니는 당신도 출가하고 싶어 하셨으니까 당연히 제 출가를 반가워하고 좋아하셨죠. 출가해서 공부할까, 공부하고 나서 출가할까 고민하다가 유학을 갔거든요. 다녀와 모교에서 여름 계절학기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출가한 다면서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느냐고 채근했을 정도니까요."

출가하기 며칠 전 어머니는 속옷부터 절에 들어가는 날에 입을 외출복, 기도할 때 입을 옷까지 전부 숯불을 들여 마련해 놓았다고 한다. 아래위로 온통 먹물 색깔의 옷을 입은 채 노트북을 들고 절 문에 들어가는 신세대 스님의 출가가 한 폭의 풍경화처럼 그려졌다.

"출가해보니 생각했던 것과 같던가요?"

"너무 좋았어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하루 중 적어도 한 시간은 좌선하면서 나만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출가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출가 사찰인 금장사(서울 홍은동)에 들어와 보니 새벽예불 후 반드시 한 시간씩 기도하고 좌선하는 거예요. 예불이나 공양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게으른 생활은 용납함이 없는 생활이 제가 추구했던 가치관과 딱 맞아 너무 감사했어요."

"출가 한 후 어머니께서는 따님이 있는 절에 더러 오셨나요?"

"경기도 구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셨는데 가을 추수가 끝나면 쌀을 스무 가마니씩 싣고 오셨죠. 절이 집과 가까우니까 농사지은 채소들을 차에 가득 싣고 오곤 하셨어요. 어머니가 싣고 온 야채 덕분에 부식비가 안 들 정도였으니까요."

딸의 출가를 이렇듯 적극 지지한 스님의 어머니가 궁금했다.

스님의 어머니는 21살에 시집와서 22살에 첫 아들을 낳고 밑으로 아들딸 셋을 더 두었다. 농사짓는 가난한 집에 와보니 시어머니는 살림에 관심이 없었다. 집안 살림살이가 엉망이었다. 팔을 걷어부치고 부지런히 농사짓고 야무지게 살림했다. 시동생, 시누이들을 돌봐 시집 장가를 보내고 자식들을 키웠다. 그 가운데 유일한 기쁨은 절에 가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 거였다. 새벽에 밭에 다녀오면 으레 독경 테이프를 틀어놓고 밥을 했다. 독경 소리가 집안에 쩌렁쩌렁 울리곤 했다. 저녁에도 하루 종일 일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졸린 눈을 부비며 3천주를 돌렸다.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돌리던 염주가 반들반들해졌다.

오로지 가족, 내 자식들의 무사를 비는 기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어머니의 불교가 변하기 시작했다. 막내딸이 불교학과를 다니기 시작하던 즈음이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하는 아비라 기도를 다니면서 교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면서 불교에 대한 지견이 넓어지는 것 같았다. 아마도 눈앞의 이 모든 것이 스치듯 지나가는 꿈과 같아서 그 무엇에도 애착을 가질 것이 없다는 것을 절절히 깨달았으리라. 그리고 알았으리라, 허깨비와 같은 몸을 가진 가짜의 나가 아닌 '참나'를 아는 것이 진정한 불법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법문을 듣고 오면 메모해 와서 어머니께 다시 들려주곤 했다. 두 분이 열심히 정진하는 모습이 아직도 스님의 뇌리에 생생히 남아있다.

어머니의 정진이 날로 깊어지자 주변에도 훌륭한 도반이 늘어났다. 자녀들이 출가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삭발하고 조계종이 아닌 타 종단으로 출가했다. 두 분의 발걸음은 전국의 선방으로 향했다. 농한기가 되면 인천 용화사 선방, 해인사 원당암, 부산 안국선원 등으로 가서 정진했다.

"기도 수행해야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태어나 여실하게 공부할 수 있다고 하셨죠."

아비라 기도했던 신심 돈독 모친
인도 유학 딸 귀국하자 출가 권유
농사 지은 쌀 · 채소 사찰에 보내
딸 출가 4년 뒤 암 진단받고 별세
와병 직전까지 반찬 봉사한 보살

그 즈음이었다. 어머니가 불교학과에 다니는 막내딸의 심중을 은근히 떠보았다.

"아무개 보살님 딸이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는데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

부러운 듯이 말씀하는 어머니에게서 스님은 출가하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읽었다. 앞의 세 자식들 시집 장가 다 보내봤으니 하나쯤은 부처님 제자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안 것은 유학중 방학 때 집에 다니러왔을 때다. 친척들이 서른이 넘은 딸을 둔 어머니에게 물었다.

"시집 안 보내요?"

어머니가 깜짝 놀란 듯 대답했다.

"시집가서 뭐하게? 저 아이는 나하고 살 거야."

깊은 속내는 묻지 않았으나 어머니는 당신도 출가해서 한 절에서 딸과 함께 사는 미래를 꿈꾸었던 것 같다.

"입버릇처럼 당신도 출가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비라 기도를 다니다보니 곁에 신심이 짱짱한 보살님들 가운데 남편과 자식을 두고 출가하는 도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딸이 출가하자 비린 음식을 요리하지 않았다. 한번은 영농조합에서 조합원인 아버지에게 조기 한 꾸러미를 선물했는데 결혼한 자식들에게 주어버렸다. 아버지가 이를 알고 서운해 했다는 이야기를 딸 스님에게 했다고 한다. 철저하게 음식 먹는 것을 가리고 짠지만을 드시며 출가한 자식처럼 수행했던 어머니는 딸이 행자생활을 마치고 사미니계를 받고 삭발한 딸을 처음 보았던 던 날, 출가자가 된 따님의 절을 받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스님 딸을 두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스님은 지금도 어머니의 그 말씀을 잊지 못하고 산다. 자신의 출가가 어머니의 삶에 영광이 되었으니 수행자로서 철저하게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딸이 출가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한두 시간씩 기도하고 밭에 나가 채소를 따서 딸 스님 절로 가져다주던 어머니는 딸 스님이 출가한지 4년 만에 돌아가셨다.

"암 진단을 받고 몇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다른 사람 돌보는 것에만 도가 트인 분이었죠.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은 해본 적도 없었으니 당신 몸이 그렇게 아파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셨던 것 같아요.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만드는 봉사를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거의 십여 년 동안 하셨어도 자신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죠."

마침 방학 중이어서 어머니 병원에 계실 때 간병을 해드렸다. 오랜 동안 〈천수경〉의 '신묘장구대다라니' 진언을 하루 108독씩 하던 것을 알던 스님이 물었다.

"엄마, 신묘장구대다라니 하고 계시죠?"

말도 못하고 누워있는 어머니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른아홉의 스님은 함께 수행자로 한 절에 사는 것을 꿈꾸었던 어머니와 그렇게 작별했다. 어머니는 이별하기에는 아직 이른 예순 아홉이었다.

"어머니들이 좀 자신만의 인생을 살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너무 성실하게만 사셨던 것 같아요. 때로는 좀 게으르게 늦잠을 자기도 하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도 아버지 혼자 계셔서 안 된다고 집에 가야 한다고 하셨죠."

그러나 어쩌랴.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어머니들의 숙명인데.

스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암의 발병 원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보다가 웃음요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 후 요가 지도를 하면서 마지막 10분은 웃음요가를 곁들이게 되었다. 늘 작았던 목소리가 커졌다. 그리고 사람들이 스님을 보면 즐겁다고 말한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아니었나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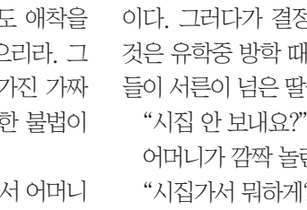
스님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매사 소심하고 수동적이었던 20대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명상했어요. '나는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강하고 현명하고 지혜롭다. 나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니다. 오늘은 새로운 나로 시작할(깨어날) 것이다.' 우리가 너무 과거에 집착하잖아요. 집착하지 않는 것이 곧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내가 되는 거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기도해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생명이 다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출가의 길은 작은 나를 떠나 큰 나, 무아의 세계로 건너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스님의 어머니가 꿈꾸었던 출가도 저 무아의 세계가 아니었을까. 〈작가〉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풍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부처님의 마음을 빗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